

<인문·사회계열(국어, 도덕,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교시) / 문항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세계사, 사회·문화,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야만적 타자, 식민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타자 담론은 식민 주체의 구성을 바탕으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는 방편이 된다는 의미에서 제국에 대한 인식적 지도 그리기 작업의 필수 요소가 된다. 그것은 두 문화 사이의 공간적 차이를 설정하는 장소의 문제와도 관계를 맺는다. 타자 담론은 재현 및 장소의 문제와 제국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타자 담론은 무엇보다 문화 간의 차이를 관계적 현상이 아니라 절대적 현상으로 파악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타자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제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최적의 수단이 된다. 문화와 문화의 관계에서 한 문화의 정체성은 바로 자아를 타문화로부터 구분하는 방식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의 식민 지배에 대한 정당성이 서구가 지닌 경제력과 군사력의 우위가 아니라, 과학·문화·정치 등의 제 분야에서 서구가 구축한 지식이 보편적인 것이라는 자기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은 타자 담론을 보증하는 확실한 지표이다. 결국 세계를 서구의 시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식민주의는 식민 지배자들에게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의 원주민은 야만과 비이성의 특징을 가진 식민주의 담론의 대상이 된다. 이질적인 공간의 원주민은 야만인이며 동물과 같은 존재일 뿐, 서구인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서구 세계 바깥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규정하는 식민주의적 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서구 세계에 존재했던 뿌리 깊은 전통이다. 야만인을 뜻하는 영어 'barbarian'의 어원은 그리스어 'barbaros'에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말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종족을 자신들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했다. 원래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란 뜻의 이 용어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타자를 비이성적인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하기 위해 쓰였다. 이를 시작으로 '야만인'은 이후 서구가 만들어낸 타자 담론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와 같이 타자 담론은 타문화의 폄하를 통해 폭력과 침략,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나>

나는 내가 발견한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이 페르디난도 코르테스*가 벌거벗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정복하는 것처럼 쉬운 일인지 의심이 든다. (……) 물론 내가 발견한 나라들을 국왕 폐하의 영토로 개척하는 주장에 대해 내가 소극적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다소 망설임을 가진 사람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해적 일당이 폭풍우 탓에 미지의 세계로 밀려갔다고

치자. 마침내 한 소년이 중간 돛대에 올라가 육지를 발견한다. 그들은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그곳에 상륙한 뒤, 순진무구한 원주민들을 발견하고 그들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그들은 그 나라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고 자신들의 국왕을 대신하여 그 나라를 공식적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기념으로 그곳에 썩은 판자나 돌을 세운다. 그들은 또 이삼십 명의 원주민들을 살육하고 그들 중 한 쌍을 강제로 모국으로 데리고 돌아와 사면을 받는다. 그럼 이때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그들 나라의 새 영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즉시 함대가 파견되고, 원주민들은 추방되거나 학살된다. 그곳의 원주민 지도자들은 황금을 내놓으라고 고문을 당한다. 비인간적이며 탐욕적인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자유로운 허가장이 제공된다. 그 나라의 대지는 원주민들이 흘린 피로 붉게 물든다. 이런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들을 개종시키고 교화하기 위해 보내어지는 오늘날의 **식민지 건설자**인 것이다.

* 스페인의 하급 귀족 출신으로,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정복한 인물.

<다>

길동은 벼 일천 석을 얻어 삼천 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조선을 하직해 큰 바다에 배를 띄워 남경 땅 제도라는 섬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수천 호의 집을 짓고 농사에 힘쓰며, 재주를 배워 무기 창고를 짓고 군법을 연습했다. 이곳은 본래 깊고도 아늑한 곳이라 누구도 알 사람이 없고 풍족했다. 하루는 길동이 화살촉에 바를 약을 구하러 배를 띄워 망당산으로 향했다. (……) 길동이 망당산을 향하여 약을 캐며 깊이 들어가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었다. 길동이 어찌할까 주저하고 있는데, 마침 사람 소리가 들리며 등불 빛이 밝게 비치는 것이 보였다. 마음속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곳을 찾아가니, 사람이 아니라 괴물 여럿이 무리를 지어 앉아 서로 지껄이고 있었다. 가만히 엿보니, 그 모습은 비록 사람이나 짐승의 무리가 분명했다. 원래 이것은 ‘올동’이라는 짐승인데, 여러 해 동안 산속에 있어 변화가 무궁했다. 길동이 생각하기를 ‘내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같은 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 이제 저것을 잡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리라.’ 하고 몸을 감추어 활을 쏘니, 그중에 우두머리 놈이 맞았다. (……) “우리는 이곳에 산 지 오래되었는데, 우리 왕이 부인을 새로 정하고 지난밤 잔치를 하다가 하늘에서 내린 재앙을 맞아서 위중하다. 그대가 명이라고 하니 선약으로 왕의 병을 고치면 큰 상을 받으리라.” 길동이 듣고 생각하였다. ‘이 놈이 어젯밤에 내 화살에 다친 놈이로구나.’ 길동이 허락하였다. (……) 길동이 평소 온갖 환약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때 그중 독한 약을 찾아내어 작은 요괴에게 주며 말했다. “이 약을 급히 갈아 써라.” 모든 요괴가 크게 기뻐하며 즉시 더운물에 갈아 먹이니, 잠시 후에 대왕이 배를 두드리고 눈을 실룩이며 소리를 지르다가 두어 번 뛰어오르더니 죽었다. 작은 요괴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모든 요괴가 아무리 천 년을 묵어 조화를 부린다고는 하나 어찌 길동의 신기한 술법을 당하리오. 한바탕 싸움으로 모든 요괴를 다 죽이고, 도로 요괴가 사는 곳으로 들어가 남은 요괴까지 모조리 죽였다. (……) 세월이 물같이 흘러 모든 영웅을 모아 무예를 연습하며 농업에 힘쓰니, 불과 몇 년 사이에 군대와 곡식이 모두 풍족해졌는데, 이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때 울도국이란 나라가 있었으니, 그 넓이는 수천 리요, 사방이 막혀 있어 과연 견고하고 풍요로운 나라였다. 길동이 매양 이곳에 뜻을 두고 왕위를 빼앗고자 했는데, 이제 기운이 활발하여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이 없게 되었다. 하루는 길동이 사람들을 불러 의논했다. “내 처음 사방으로 다닐 적에 울도국에 뜻을 두고 이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마음이 크게 움직이니 운수가 열렸음을 알겠노라. 그대들이 나를 위해 군대를 징발하면 울도국 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것이니, 어찌 큰일을 도모하지 못하겠는가?” 길동이 스스로 선봉이 되어 정예군사 오만 명을 거느리고 날을 정해 출병하니, 이때는 갑자년 음력 9월이었다. (……) 격서를 써 울도 왕에게 전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의병장 홍길동이 글월을 울도 왕에게 전하노라. 대저 임금은 한 사람의 임금이 아니요, 천하 사람의 임금이라. 이러므로 탕왕이 걸을 정벌하시고 무왕이 주를 정벌하신 것은 하늘의 이치로 자연히 된 일이라. 내 일찍이 군사를 일으켜 울도국을 치매, 먼저 철봉성에 항복받고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니 지나는 곳마다 투항하지 않은 자가 없었도다. 이제 왕이 싸우고자 하면 싸우고, 그렇지 아니하면 일찍 항복하여 살기를 도모하라.” 울도 왕이 끝까지 다 읽은 후 놀라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철봉성을 믿고 지내왔거늘, 이제 철봉성을 잃었으니 어찌 적의 형세를 당하리오.”하고는 자결하니, 세자와 왕비가 따라 모두 자결했다. 길동이 성안으로 들어가 백성을 위로하고 소와 양을 잡아 여러 장수와 군졸에게 베풀었다. 길동이 왕위에 오르니, 때는 을축년 정월 28일이었다.

1.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인 태도를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를 평가하십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2회차 계열문항 1 논술 주제는 ‘식민주의’이다. 식민주의란 식민 주체의 구성을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념이다. 이 문제는 식민주의 이념이 타자 담론에 근거하여 식민 주체를 ‘야만적 타자’로 구성하는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하는지의 물음을 던지고 있다. 나아가 이 물음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바탕으로 식민주의 이념이 이른바 ‘고전’으로 일컬어지는 문학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1) 문화와 윤리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중: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말할 수 있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제시문 <나>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세계사		관련
성취 기준 1	(4)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12세사04-03] 신항로 개척이 가져온 유럽의 흥기와 절대 왕정의 등장에 대해 탐구하여 유럽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파악한다.	제시문 <가>, <나>
성취 기준 2	(5)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 대전 [12세사05-01]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이에 대한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 운동에 대해 조사한다.	<나>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 기준 1	(3)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평가기준 상 ;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사례를 들어 비교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문제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3)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12문학03-02] 대표적인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파악하고 감상한다. -평가기준 (상) 한국 문학의 대표작들에 구현된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평가기준 (중)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하여 읽고, 한국 문학이 지닌 보편성과 한국 문학만의 특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다>
성취 기준 2	(4) 문학에 관한 태도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평가기준 중 : 작가의 가치관, 작품 속 인물의 성격과 태도 등을 통해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과 작품에 대한 타인과 소통하는 태도를 보인다.	제시문 <나>,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탈식민주의	고부응 외	문학과지성사	2003	276~279	제시문 <가>	○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유경희 역)	미르북 컴퍼니	2020	518~519	제시문 <나>	×
홍길동전(홍길동전·전우치 전)	김현양 편(허균)	문학동네	2010	48~60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8	170-174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8	168-175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세계사	김형중 외	금성출판사	2018	106-139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세계사	김덕수 외	천재교육	2018	66-169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18	94-105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18	92-102	제시문 <가>	×
고등학교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9	282-297	제시문 <다>	×
고등학교 문학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204-226	제시문 <가>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고부응 외, 『탈식민주의』, 문학과지성사, 2003, 276-279쪽.

<가>는 타자 담론이 식민주체의 구성을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서구 식민주의 이념의 수단이 되었음을 논하고 있다. 제시문에 따르면, 타자 담론은 공간적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두 문화 사이의 차이를 절대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타문화로부터 자아를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이러한 타자 담론에 근거하여 서구의 식민주의는 제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제국 바깥에 존재하는 이질적 공간의 원주민을 열등한 종족,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야만인’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식민주의는 제국 외부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에 합법성을 부여했다.

제시문 <나> : 조너선 스위프트, 유경희 역, 『걸리버 여행기』, 미르북컴퍼니, 2020, 518~518.

<나>는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에서 인용한 글로, 작가 ‘나’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을 원정 정복한 스페인 출신 코르테스의 행위를 풍자적 예화(例話)의 서술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벌거벗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한 코르테스로 대변되는 ‘식민지 건설자’들을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라고 비꼬어 표현하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나’는 그들의 신세계 정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나’가 제시한 예화에 따르면, 황금의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신세계를 정복한 ‘식민지 건설자’들은 그곳의 원주민을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저지른 온갖 비인간적이고 탐욕적인 행위를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야만인의 ‘개종’과 ‘교화’를 위해 수행한 것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서구의 제국 외부의 신세계 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하여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시문 <다> : 허균, 『홍길동전』 (완판본)

<다>는 『홍길동전』에서 인용한 글로, 길동이 조선을 하직하고 울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대목이다. 이 과정에서 길동이 보인 행위는 크게 두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첫째는 울도국 정벌의 군사적 거점이 되고 있는 ‘제도’라는 섬에서 그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울동’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점이다. 제시문에 암시되어 있듯이, 울동은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로 언어를 사용하며 등불을 이용할 줄 알고 결혼 풍속을 지닌 제도 섬 산속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길동을 아무런 경계하지 않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길동이 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짐승’, ‘요괴’, 즉 야만적인 타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길동의 울도국 정벌이 명분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이다. 사실 길동의 울도국 정벌은 그곳이 지닌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길동은 울도국의 정벌을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연히 된’ 일이라며 명분 없는 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요컨대 길동에게 조선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와 울도국은 야만적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장소의 원주민들은 제거해도 무방한 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문제는 ‘식민주의’에 대해 논하고 있는 <가>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인 태도를 분석하고, 이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제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답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째, <가>의 핵심 논지 파악

둘째,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 분석,

셋째, 둘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 평가.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p>@ 답안의 기본 요소 첫째,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가. 둘째,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셋째,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p> <p>@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p> <p>* <가>의 핵심 논지 파악</p> <p>① 타자의 담론에 근거한 식민주의 이념의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히 정리하고 있는가?</p> <p>-타자 담론과 식민주의 : 식민주의는 타자 담론에 근거하여 제국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제국 바깥에 존재하는 이질적 공간의 원주민을 열등한 종족, 동물과 같은 비이성적 ‘야만인’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식민주의는 제국 외부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에 합법성을 부여했다.</p> <p>* <가> 논지를 활용하여 <나>에서 ‘나’가 ‘식민지 건설자’에 대해 보이는 태도 분석.</p> <p>② ‘식민지 건설자’란 곧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 집단’이라는 표현에 함축된 ‘나’의 태도를 적절히 추론하였는가.</p> <p>-‘나’의 ‘식민지 건설자’에 대한 비판적 태도 : ‘나’ ‘벌거벗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정복한 코르테스로 대변되는 ‘식민지 건설자’들을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라고 비꼬어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는 ‘식민지 건설자’들의 신세계 정복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p> <p>③ ‘나’의 태도를 <가>의 논지와 연결지어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p> <p>-황금의 강탈과 약탈을 목적으로 신세계를 정복한 ‘식민지 건설자’들은 그곳의 원주민을 ‘우상을 숭배하는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자신들이 그곳에서 저지른 온갖 비인간적이고 탐욕적인 행위를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야만인의 ‘개종’과 ‘교화’을 위해 수행한 것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런 점에서 ‘나’는 서구의 제국 외부의 신세계 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하여 제국의 폭력과 침략 및 정복을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p> <p>* 둘째 단계에서 이루어진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 평가</p> <p>④ 식민주의 이념 및 효과와 관련지어 울도국의 왕이 되는 과정에서 ‘길동’이 보이는 길동의 행위와 관련 두 가지 평가 지점을 적절히 포착하고 있는가.</p> <p>- 두 가지 평가 지점 첫째, 울도국 정벌의 군사적 거점이 되고 있는 ‘제도’라는 섬에서 그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울동’이라 일컬어지는 존재들을 ‘모조리’ 죽인다는 점이다. 둘째는 길동의 울도국 정벌이 명분이 없는 행위라는 사실이다.</p> <p>⑤ 식민주의 이념 및 효과와 관련지어 ‘길동’의 보인 두 가지 행위의 특징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적절히 평가하고 있는가.</p> <p>-첫번째 행위에 대한 평가: 울동은 ‘사람’의 형상을 한 존재로 언어를 사용하며 등불을 이용할 줄 알고 결혼 풍속을 지닌 제도 섬 산속에 거주하는 원주민들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길동을 아무런 경계하지 않는 사실과 대조적으로 길동이 이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짐승’, ‘요괴’, 즉 야만적인 타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p>	

<p>-두번째 행위에 대한 평가 : 길동의 울도국 정벌은 그곳이 지닌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동은 울도국의 정벌을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연히 된' 일이라며 명분 없는 정벌을 정당화하고 있다. 요컨대 길동에게 조선 바깥에 존재하는 '제도'와 울도국은 야만적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장소의 원주민들은 제거해도 무방한 정복의 대상이 되고 있다.</p> <p><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p>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정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나,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부정확한 경우	2등급
1등과 동일하되, ②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3등급
2등과 동일하되, ②가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4등급
1등과 동일하되, ②, ③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5등급
2등과 동일하되, ②, ③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중 세 개 이상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 네 개 이상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게 기술된 경우.	8등급
300자 이하	9등급

7. 예시 답안

<가>는 타자 담론이 식민주체의 구성을 통해 제국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식민주의 이념의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가>에 따르면, 타자 담론은 공간적 차이에 기인하는 두 문화 간의 차이를 절대적 것으로 인식하고 타문화로부터 자아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체성을 구성한다. 이에 따라 식민주의는 제국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이질적 공간의 원주민을 비이성적 '야만인'으로 규정한다. 이처럼 식민주의는 제국 외부의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함으로써 제국의 폭력적 정복에 합법성을 부여했던 것이다.

<나>에서 '나'는 '식민지 건설자'들을 '경건한 원정에 참여한 살육자 집단'이라는 풍자적 표현을 통해 그들의 신세계 정복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나'가 제시한 예화에 따르면, '황금'의 강탈을 목적으로 신세계를 정복한 그들은 원주민을 '야만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인간적, 탐욕적 행위를 '야만인'의 교화를 위해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정당화한다. 이 점에서 '나'는 타문화를 야만적 타자로 폄하하여 제국의 정복을 합법화하는 식민주의를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다>에 그려진 길동의 행위는 '식민지 건설자'의 그것과 두 가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제도'에서 사람의 형상을 한 '울동'을 죄의식 없이 '모조리' 죽이는 행위는 '울동'을 '짐승', '요괴' 즉 '야만적 타자'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길동의 울도국의 정복이 명분 없는 행위라는 점이다. 길동의 울도국 정복은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한 관심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위를 '하늘의 이치'에 따라 '자연히 된' 일로 정당화한다. 이는 신세계 정복이 '하늘이 부여한 권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식민지 건설자'의 신념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요컨대 길동에게 조선 외부의 '제도'와 울도국은 야만적 타자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그 장소의 원주민들은 제거해도 무방한 정복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길동의 행위는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문·사회계열(국어, 도덕, 사회)>

[숙명여자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교시) / 문항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정치와 법, 경제,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세계화, 세계무역기구, 주권, 인권, 특허권, 강제실시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세계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두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나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globalized localism)고, 다른 하나는 ‘지역화되는 세계주의’(localized globalism)다. 전자는 특정한 지역에서 생겨난 현상이 세계화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영어의 만국공용어화, 미국의 패스트푸드 또는 팝뮤직의 세계 정복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이 국제 표준으로 통용되는 현상 등이 있다. 법의 영역에서 세계화는 서구의 상거래 방식, 과학 기술, 법적 기술 등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는 특정한 지역 국가들의 조건과 구조, 사람들의 행위가 초국가적 영향에 대응하여 해체되고 재구조화되는 변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외국인의 관광이 남미 지역 국가들의 토착 수공업에 영향을 미쳐 수공업의 방향과 구조가 바뀌는 현상, 초국가적 거래 현실에 발맞추어 한국의 상업관련 법이 변화하는 현상, 이른바 ‘구조 조정’의 일환으로 농업 분야에서 추진되는 무역 자유화의 흐름 등이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구조의 세계화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계화에서는 일종의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세계화로 묘사되는 세계 체계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구성된 일종의 그물망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들은 세계화되는 지역주의를 수행하며, 후진국들과 발전도상국들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를 선택하도록 강제된다. 따라서 세계화는 세계 체계 내에 있는 중심 국가들, 주변 국가들, 반(半)주변 국가들 사이의 불평등 관계로 이루어진 위계질서를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고착화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측면을 ‘체계 순응적 세계화’라고 명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화되는 지역주의나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나타나는 세계화는, 하버마스의 표현법을 적용하여 확대해 보면, ‘체계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현상’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확대 심화되어 관철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화란 중심 국가들에서 작동하는 경제시장 및 행정의 논리가 주변 국가의 체계와 생활 세계를 식민화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과정에 이른다. 이렇게 파악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자본을 우위에 두는 반자유적,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지배 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흐름은 각국의

고유한 법 문화를 해체하고 주권도 경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목표로 삼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등으로 이루어진 무역규범을 회원국에 적용한다. 회원국은 자국의 법과 정책, 조치 등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 WTO 체제는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차별의 철폐를 주요 원칙으로 삼고 있다.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각국은 자기 나라의 무역 상대국들을 모두 똑같이 해주어야 한다. '내국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 상품에 대해서도 자국 상품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이 같은 원칙은 직접적 차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내 정책의 간접적 효과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하여 각국 정부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법과 정책, 조치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TRIPs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협정은 국가가 특허권 등록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였을 뿐 아니라, 생명권, 건강권, 식량권 등의 증진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국가 권한을 약화시켰다. 특히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할 국가 권한의 행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강한 비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도하 협정에서 어느 정도 양보가 이루어졌다. 심각한 보건 위기 상황을 야기한 질병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나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할 경우, 예를 들어 구매자가 도저히 구입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가격으로 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각국이 '강제실시' 제도를 시행하여 특허권 여부와 상관없이 복제 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이를 시행하기란 쉽지 않다. 2006년 브라질에서, 2007년 타이에서, 강제실시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드러났다. 당시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강제 실시 착수를 멈추지 않으면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2001년에도 국내에 만연한 에이즈에 대처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복제 약을 쉽게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였는데, 이때 제약회사들은 TRIPs를 위반하는 국내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를 제소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제약회사들이 다양한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제소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런 위험은 여전하다.

WTO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인권을 위해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 GATT에는 인권과 연결되는 조항으로 제20조가 있다. 이 조항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보다 '비(非)교역성 공공 가치'를 예외적으로 우선할 수 있는 조치로, '공중도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인간, 동식물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 '공급이 부족한 제품을 획득하거나 분배하는 데 불가결한 조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WTO 분쟁해결기구는 이 조항의 발동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즉,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고 정당화되려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역을 덜 제한하는 다른 어떤 대안도 상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제시하기란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 결과 현실에서는 인권이 무역의 뒷전에 놓이기 쉽다.

〈다〉

2004년 조류 인플루엔자(H5N1)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대비 최소 20%'에 해당하는 분량의 치료제를 확보하도록 권고했다. 그런데 유력한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회사 로슈가 공장을 완전히 가동해도 WHO 권장량에 맞추려면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수요와 공급의 간극이 너무 커지자 선진국이 앞다퉈 타미플루 확보 경쟁에 나섰다. 로슈의 타미플루 연간 생산량이 4억 명의 인구가 복용할 수 있는 분량밖에 되지 않자, 타미플루는 최고 4~5배나 폭등한 가격에 팔리기도 했

고, 남미 국가에서는 9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2009년 당시 한국 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신종 플루 치료제는 500만 명분이었는데, 이 중 비축한 220만 명분은 유효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다.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이었다. 그 시기에 신종 플루의 본격적인 대유행이 예상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바로 공급 부족 때문이었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를 받은 발명품을 타인이 사용, 즉 생산·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도 않고, 특허권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있다. 특허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있다. 질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혹은 공급이 불충분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클 때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특허의 전부이기에, 특허권자가 생산과 판매의 전 과정에 걸쳐 독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제도 쉽기 때문에 독점이 깨질 경우 가격이 독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제약회사는 강제실시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킨다.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생산을 독점한 상황에서 약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제약회사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질병의 공격을 받아도 부유한 사람은 피해 가고 가난한 사람만 당하는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한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AZT)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돼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이즈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처럼 다스리고 있음에도, 매년 200만 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사는 것은 다 이 때문이다.

3.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로벌 보건 위기 속에서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취약성을 소재로 삼아 세계화 현상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WTO 체제를 통한 세계화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자본의 중시와 인권의 주변화 방치 구조를 세계적으로 확립하는 것임을 생각해보게 하였다.

이 문항에서는 세계화를 핵심어로 삼고, 이론적 입론에 관한 제시문 <가>, 실천적 작동에 관한 제시문 <나>, 현실적 구현 양태에 관한 제시문 <다>를 제공하고, <가>와 <나>를 활용하는 일반 입론의 특정 체계에의 적용, <나>와 <다>를 활용하는 특정 체계의 개별적 구체화 양상, <다>와 <가>를 활용하는 개별적 구체화의 일반 입론 확인이라는 문제 해결의 하강 구도와 상승 구도라는 복합 구도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의 편향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그 극복, 즉 공공가치 실현의 정의로운 세계화라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기대효과를 예정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 2.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의 일반 과목
---------	---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고전과 윤리	
	성취 기준 1	(4) 사회사상 [12윤사04-05]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평가기준 상 :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및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과 품격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타인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
		관련
		문제 2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 기준 1	(6) 평화와 공존의 윤리 12생윤06-03]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평가기준 하 :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에 관해 윤리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고 실천 방안을 부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나) 제시문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성취 기준 1	(8) 세계화와 평화 [10통사08-01] 세계화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기준 상 : 세계화의 양상을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하고, 세계화 시대에 나타나는 문제를 조사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	
	문제 2	
성취 기준 2	(4) 사회 정의와 불평등 [10통사06-03]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탐색한다. -평가기준 상 : 사회 및 공간 불평등 현상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평가할 수 있다.	
	관련	
	제시문 (가) 제시문 (다)	
과목명: 사회문화		
성취 기준	(5) 현대의 사회 변동 [12사문05-04]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	
	관련	
	문제 2	

1	색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평가기준 하 :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의 양상을 제시할 수 있다.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5) 세계 시장과 교역 [12경제04-01]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파악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이해한다. -평가기준 중 :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 교과서 내의 자료만 활용한 경우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244-250	제시문(가) 제시문(나)	○
통합사회	박병기 외	Visang	2018	233-234 151	제시문(가) 제시문(나)	○
정치와 법	김왕근 외	천재교과서	2019	195	제시문(나)	○
정치와 법	모경환 외	금성출판사	2019	169,175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Mirae N	2019	202-204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19	205-212	제시문(가) 제시문(다)	○
고등학교 경제	김진영 외	Mirae N	2019	49-54 138-143	제시문(나) 제시문(다)	○
고등학교 경제	허수미 외	지학사	2019	51-56 137-142	제시문(나) 제시문(다)	○

-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한 경우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법철학	이상영·김도균	KNOU Press	2016	387-388	제시문(가)	○
인권의 대전환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9	152-160	제시문(나)	○
한겨레21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홍지은	한겨레신문사	2009	제776호(2009.08.31.)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KNOU Press, 2016, 387-388쪽.

<가>는 세계화 주제에 관한 이론적 틀에 해당하는 자료로, 수렴적 보편화로 이해되는 단선적

세계화의 통념 속에 있는 세계화의 이중적 과정과 이를 통해 귀결되는 체계 순응적 세계화, 즉 자본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생활세계의 신자유주의적 식민화 과정이 담고 있는 세계화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 : 샌드라 프레드먼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152-160쪽.
 <나>는 세계화 주제에 관한 실천적 체제의 예에 해당하는 자료로,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중심에 두고 무역규범 수립을 통한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회원국의 무역규범 이행·준수를 통한 ‘지역화되는 세계화’를 실현하는 방식과 함께 서구를 중심으로 한 교역적 자본 가치를 우선하고 비서구의 생명권·건강권·식량권 등 비교역적 공공 가치와 국가 권한을 약화시키는 세계화의 내용을 제공한다.

제시문 <다> : 홍지은,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한겨레21, 제776호(2009.08.31.).
 <다>는 세계화 주제에 관한 구현의 개별 실태에 해당하는 자료로, 세계화를 통한 특허권의 강한 보장이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라 구매능력에 종속되는 의약품 확보와 그로부터 소외되는 생명권 및 건강권 위기의 국가별 편중 현상과 함께 국가의 강제실시 발동 요건과 실제 발동 자제의 사실을 제시한다.

논제의 구성

- ※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의 상황이 초래된 요인을 분석하시오. (1,000±100자)
 인문계열 2회차 <문항2>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 물음으로 구성된다.
 첫째 물음은 <가>의 논지를 활용하여 <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둘째 물음은 위의 근거하여 <다>의 상황이 초래된 요인을 분석하시오.

이 논술 문항의 주제는 ‘WTO 체제에서 나타난 세계화의 특성과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취약성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제시문 <가>의 논지를 통해 제시문 <나>가 다루는 체제의 특징을 살펴보고 제시문 <다>의 현실이 전개되도록 하는 제도적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즉 <가>에서 주장하는 체계 순응적 세계화가 <나>의 체제에서 구체화되는 방식과 확립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다>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나타나도록 하는 요인을 분석적으로 논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고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과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세계화, 국제관계, 국제법, 자본주의, 인권 등의 주제를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논제로,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구조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2	■ 답안의 구성요소	1등급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의 논지 파악】

▶ 제시문 <가>의 논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 ① 세계화 진행의 두 가지 방식과 특성
 -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구성됨
 - 주변 국가들의 체제 순응적 세계화를 이룸
- ② 세계화 과정의 본질적 특성
 - 서구의 시장 논리가 비서구의 체제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과정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반인권적 지배구조의 확립과 지속

▶ 예시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세계화, 세계화된 지역주의, 지역화된 세계주의, 그물망, 체제 순응적, 서구 (또는 중심) 국가, 주권, 경제시장, 신자유주의, 식민화, 반인권

【제시문 <가>를 활용한 제시문 <나> 체제 특징 설명】

▶ <가>의 논지와 대비하여 <나>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능력 측정

- ③ 세계화 진행의 두 현상
 - WTO 무역규범 채택은 서구 법의 세계화임
 - 회원국의 WTO 무역규범의 이행과 준수는 세계화된 법의 지역화임
- ④ 비서구 국가의 주권 축소
 - 국내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의 자유로운 선택이 불가능함
- ⑤ 신자유주의적 내용의 세계화
 - 자유 무역 원칙을 우선하고 인권 등 비교역적 가치의 예외 취급

▶ 예시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WTO, 무역규범, 세계화된 지역주의, 회원국, 이행준수, 지역화된 세계주의, 주변 (또는 비 서구) 국가, 주권, 건강권, 강제실시, 자유 무역 원칙, 비교역성 공공가치, 인권, 예외, 뒷전

【제시문 <다> 상황 초래 요인 분석】

▶ 요인과 그 근거를 앞부분의 논지 및 특징과 연결하는 능력 측정

- ⑥ <다>의 상황 특징
 -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잠재적 위협 직면
 - 질병 대유행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조치 (또는 강제실시) 비 채택 상태
- ⑦ 정부의 강제실시 비(非) 채택의 국내외적 요인
 - 특허권을 강하게 보장하고 강제실시를 제한하는 WTO 규범과 국내법 존재
 - WTO법과 국내법의 자유 무역 우선과 비교역성 공공 가치의 엄격 적용
- ⑧ 보건 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처 미흡의 근본 요인
 - 근거에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체제 순응적 세계화가 있음

▶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대유행, 위협, 공급 부족, 정부, 의약품, 강제실시, 특허권자, WTO, 무역규범, 특허법 (또는 국내법), 자유 무역, 비교역성 공공 가치, 경제시장, 신자유주의, 주변 (또는 비 서구) 국가, 체제 순응적, 세계화,

⑨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환문하여 본인의 문장으로 글을 써야 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0점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0점 처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과 ⑨를 모두 충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을 모두 충족하고, ⑨가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1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2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3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중 어느 4 가지가 없고, ⑨가 부족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가 모두 상당히 미흡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9등급

7.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세계화는 세계화되는 지역주의와 지역화되는 세계주의로 이루어지고, 양자의 그물망구조에 의해 주변 및 반(半)주변 국가들의 체제 순응적 세계화로 나간다. 그리하여 세계화는 중심 국가의 경제시장 및 행정의 논리가 주변국가의 체제와 생활세계를 식민화하는 과정이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반자유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지배구조를 고착화하고 재생산하는 과정이라고 <가>는 주장한다.

<나>의 WTO 체계는 <가>에서 밝힌 체제 순응적 세계화에 해당하는 과정과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 첫째, WTO 체계는 세계화의 두 현상을 보여준다. 중심국가에서 발전해온 자유 무역과 권리가 WTO 체계의 무역규범으로 채택되는 것은 지역의 법이 세계의 법이 되는 것, 즉 세계화된 지역주의를 이루는 것이다. 회원국이 그 규범을 자국의 법, 정책, 조치로 이행·준수하는 것은 세계의 법이 지역의 법으로 되는 것, 즉 지역화된 세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WTO 체계는 무역규범의 세계화를 통해 주변 국가의 주권을 축소하고 있다. 자국의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정책이라도 WTO 체제로 인하여 주변 국가가 자유롭게 택할 수 없다. 셋째, WTO 체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견지한다. WTO에서는 자유 무역 원칙이 우선하고 인권과 같은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극히 예외로 취급하여 인권이 경시되고 있다.

<다>의 상황은 신종 플루 대유행이 예상되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이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정부가 강제실시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은 의약품을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하고 강제실시를 엄격히 제한하는 WTO 무역규범이라는 세계법과 이를 지역화한 국내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권과 건강권의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은 WTO 무역규범과 국내법이 자유 무역 원칙을 우선하고 생명권과 건강권이라는 비교역성 공공 가치를 예외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그 적용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보건 위기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처의 근저에는 기본적으로 경제시장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주변 국가의 체제 순응적 세계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094자]